

# '고소영' 가니 '성시경'... 탕평도 감동도 없었다

〈고려대·소양교회·영남〉

〈성균관대·고시·경기도〉

# 새 정부·호남의 가교 이정현 역할 큰 기대

정무수석 맡아... "소통의 수석 되겠다"

### 박근혜 정부 1기 인선 '친위형 청와대·관리형 내각'으로

### '빅2' 총리·비서실장 모두 영남... 호남은 구색 맞추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청와대 6개 수석비서관 내정자를 발표하면서 새 정부 초기 내각과 청와대 진용 구축을 마무리했다.

정부 출범을 불과 6일 앞두고 '박근혜 정부' 초기 국정운영을 이끌어갈 양대 축인 내각과 청와대 인사작업을 완료한 것이다.

그동안 발표된 국무총리와 17개 부처 장관, 3실장-9수석비서관의 청와대 비서관을 살펴보면 내각은 전문성에 방점을 뒀고, 청와대는 친정체제 구축에 신경을 썼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대선 전후에 수차례 강조했던 '대통령 인사'는 영남 우대와 호남 소외, 성균관대학교 출신의 우대로 무산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때문에 '성균관대 7명, 고시 16명, 경기도 5명' 등을 들어 가수 성시경씨를 비롯한 '성시경' 정부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친정체제 구축, 내각은 전문성 중시=박 당선인은 새 정부 1기 청와대 비서관으로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인사들을 중용함으로써 친정체제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청와대의 3실장-9수석비서관 중 박 당선인과 인수위(4

명)에서 함께 일을 하거나 대선 때 조인그룹으로 참여하는 등 직접적 관련이 있는 인사들이 9명이나 차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는 박 당선인이 내세웠던 '낮은 청와대' 구상과는 거리가 먼 결과로 이어질 것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무게감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 속에서 청와대 비서관의 영향력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는 관측 때문이다.

내각에는 관료와 전문가를 대거 포진시켜 전문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비서관이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소통하는 창구라면 내각은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대선 공약을 충실히 집행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성을 중시했다는 것이다. 17개 부처 장관 중 관료 8명, 교수와 연구원 6명 등 관련 전문가가 14명이나 포진된 것이 이런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30명 중 성대 출신 7명=청와대 3실장과 9명의 수석비서관 가운데 이날 임명된 모철민 교육문화수석 내정자를 비롯해 성대 출신은 5명으로 가장 많다. 내각에서도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성대 출신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각(18명)과 청와대(12명) 인선 30명 가운데 성대 출신은 7명이다. 서울대 출신(1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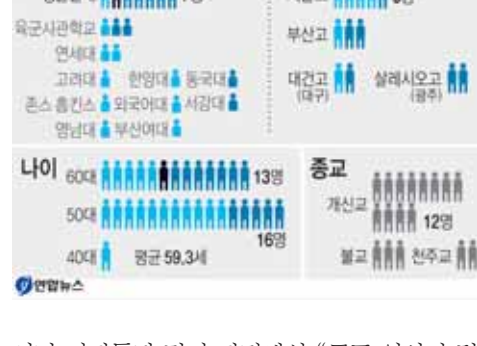


신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각(18명)과 청와대(12명) 인선 30명 가운데 성대 출신은 7명이다. 서울대 출신(1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호남 출신 5명=대통령 미출=출생 지역의 경우 수도권인 11명으로 가장 많다. 영남이 8명으로 그 다음이다. 특히 새 정부의 '빅2'인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은 모두 영남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에 반해 호남 출신은 장관 2명, 청와대 비서관 3명 등 5명에 불과했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해 12월 20일 대국민 메시지에서 "모든 지역과 성별과 세대의 사람들을 골고루 등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인사 내용 면에서는 부족하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 내정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드 인사나 당선인과의 특별한 인연을 두고 하는 인사가 아니다"며 "지금은 일 위주로 (인선을) 하고 있고 두루두루, 고루고루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취임식 연습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19일 행사장인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방부 의정대가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청와대 수석 내정자 프로필**
- ▶정무 이정현(55)·전남 곡성 학력 광주삼례시교과/동국대 정치외교학과 현직 새누리당 최고위원
- ▶외교인보 주철기(67)·강원 원주 학력 서울고/서울대 서양사학과 현직 유엔글로벌 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 ▶경제 조원봉(57)·충남 논산 학력 경기고/서울대 경제학과 현직 한국조세연구원장
- ▶고용복지 최성재(67)·서울 학력 서울대 사회사학과 현직 서울대 명예교수
- ▶교육문화 모철민(67)·서울 학력 경북고/성균관대 경영학과 현직 예술의전당 사장
- ▶미래전략 최순홍(67)·서울 학력 서강대 전자공학과

### 조원봉 경제

### 참여정부 거시경제정책 총괄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에 능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거시정책통. 참여정부 말기에 재정부 차관보를 맡으며 부동산정책 등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했다. 합리적인 성품에다 일 처리가 꼼꼼해 주변의 신임이 두둑하다. 2006년 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재직 시절 부처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뽑은 '가장 닮고 싶은 상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 주철기 외교인보

### 다자업무 능통한 '유럽통'

합리적이고 겸손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통 외교관 출신. 유엔과 제네바 대표부 등에서 근무해 다자 업무에 능통하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아프리카, 중미 등에서 업무 경력을 쌓아 유럽통으로도 꼽힌다. 하지만, 이른바 외교부 내 핵심으로 꼽히는 '북미라인'이나 '재팬스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 최성재 고용복지

### '박근혜표 복지' 밑그림 그려

사회복지학계의 대표적인 원로 학자. 2010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장에 발기인으로 참여하면서 이른바 '박근혜표 복지'로 불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도입·어르신 간병비용 지원 등 새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을 정착시키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모철민 교육문화

### '문화·관광 30년' 정통 관료

30년 동안 문화·관광 분야에 몸담아온 정통 관료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에선 대통령비서실 관광체육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장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을 거쳐 제1차관을 지냈다. 온화한 성품에 일 처리가 꼼꼼하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 재직시 양국 문화교류 활성화와 공로로 프랑스 문화예술훈장을 받은 바 있다.

### 최순홍 미래전략

### 유엔 등에서 일한 IT 전문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유엔에서 정보기술(IT) 업무 분야에서 굵직한 이력을 쌓은 국제적인 IT 전문가. IT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성실성, IMF 근무 당시 한국인 최고 중재 지위에 오르며 유엔에서도 사무차장급 자리에 임명돼 한국인의 IT 분야 우수성을 과시하는 등 국위선양을 해 온 점을 박근혜 당선인이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달리 '이명박근혜'던가?!

## 제60회 3·1절 기념 강진투어 전국도로사이클 대회

2013. 2. 26.(화) ~ 3. 2.(토) / 5일간

주요종목 12종목(개인도로 4, 개인도로 short코스 4, 크리테리움 4)

주요일정

- 2. 26.(화) 09:30 개최페어데 / 군민체육센터 - 시가지 - 우시장 입구 - 10:00 개인도로경기(남 일반부, 남 고등부)
- 2. 27.(수) 개인도로경기(여 일반부, 여 고등부)
- 2. 28.(목) 개인도로경기 short 코스(남, 여 일반부, 남, 여 고등부)
- 3. 1.(금) 순환경기(남, 여 일반부, 남, 여 고등부)
- 3. 2.(토) 09:30 개최페어데 / 강진체육관 - 소방서 - 우시장 입구 - 10:00 마스터즈 사이클 강진투어(동호인)

주요코스

- 1 개인도로(장거리): 우시장(출발) - 소방서 - 까치해체 - 직전문화(재민원정) - 성진 - 강진 - 우시장 끝(총 연장 39.5km)
- 1 개인도로(short): 우시장(출발) - 강진동초교4거리 - 강진농협주유소 - 동화주유소 - 평동교차로 - 개리교차로 - 남교교차로 - 다산수련원 - 평동교차로 - 버스터미널삼거리 - 우시장 끝(총 연장 21km)
- 1 순환 경기: 청자박물관 도예문화원 주차장(출발) - 도예문화원앞 - 대덕방면(천변도로) - 청자박물관(계곡교앞)

대회는 2월 26일부터 5일간 개최되는 제60회 3·1절 기념 강진투어 전국도로 사이클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대회 기간 중 일부 도로를 경기진행에 따라 통제합니다. 교통통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대한사이클연맹 주관: 대한사이클연맹 강진군 후원: 강진군체육회